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사회와 함께 PLUS”... 취약계층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급변하고 있는 취업 환경 속 '지역사회와 함께 PLUS'라는 비전으로 ▲ 전문성(Professional) ▲지역협업(Local) ▲코로나19 통합(Unity) ▲나눔(Share)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해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일과 사람을 이어주고, 생애주기 커리어를 돌보며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확인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가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2006년 설립되어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이름을 올린 충북혁신도시(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주인공.

특히,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취약계층을 위한 진로지도, 취업 컨설팅, 진로탐색 특강, 멘토링 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수여하는 '2021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유공 장관 표창'을 충북지역 단체로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나영돈 원장을 만나봤다.

Q.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14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이후 지역주민과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ESG경영이 주목을 받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취약계층에게 공공기관의 책무를 실천하고자 고용정보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고, 긍정적인 영향력 전파를 위해 관심을 갖게 됐다.



취업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청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고용정보원 전경.

졸업반 면접 트레이닝 · 취업 컨설팅 · 진로탐색 등 지원 행안부 지역문제해결 유공 표창... 사회공헌 활동 '선도'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사업을 하고 계신지?

지역 내 취업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고용정보원은 2021년 충북도 내 5개 대학의 졸업반 대상 면접 집중 트레이닝, 취업 멘토링, 청년인턴 대상 NCS 채용 대비 교육, 청년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보호종료청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 취업 컨설팅, 취업캠프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 내 진천군, 음성군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

생들을 위해 초 · 중학교에 진로탐색 특강 및 가상현실(VR) 미래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총 1,17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 밖에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충북반도체고 학생 대상으로 추진한 취업 컨설팅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2021년 '지역사회와 함께 PLUS'라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했다.

전문성(Professional), 지역협업(Local) 코로나19통합(Unity), 나눔(Share)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해 차별화된 전략을 세웠다.

이 밖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포함한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교육청, 지자체와 협업을 확대해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청년', '지역 대학생' 등 취약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것이 선정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주민이 직

접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 공공기관, 전문가, 대학, 자치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거나 협업 체계인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회 진로특강, 취업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수여하는 '2021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업이다. 시민참여혁신단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들과의 소통으로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역 내 각계 이 전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상호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결합시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3월부터 충북도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 3개소가 함께 협업하여 충북혁신도시 취약계층에 일 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을 시작했다. 이처럼 2022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집중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올해 보건사업계획 수립

5개 분야 87개 사업... 정책방향 공유 위해 책자 제작 · 발간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조성 비전... 42억원 편성 · 추진

충북도는 2022년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해 시 · 군에 배포했다.

도와 시 · 군과의 정책방향 공유하기 위해 제작한 책자에는 2022년도 충북도의 보건사업이 전반에 걸쳐 수록돼 있다.

보건사업계획은 크게 보건정책, 건강증진, 정신보건, 의료관리, 공공의료 5개 분야의 총 87개 사업을 담고 있으며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체계, 행정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도는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먼저 보건정책분야에는 보건기관 시설 개 · 보수 등 농 · 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기관 장비 · 차량 기능보강 지원, 공중보건의사 관리, 보건료소 운영 등을 위해 42억원을 편성해 추진한다.

건강증진분야에는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일환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건보건 · 영유아 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검진사업 등 모두 20개의 사업에 256억원 규모로 일상생활 속 건강실천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신보건분야는 코로나19 대응 대상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 조기개입 · 위기관리 대응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 지역사

회 중심의 빈틈없는 치매안전망 구축을 통한 치매관리사업 등 24개 사업에 301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관리분야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등을 통한 도민 안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코로나19 비대면 수요 증가를 반영한 해외의료 비대면 홍보 · 마케팅 지원, 신속한 재난 대응망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등 16개 사업에 63억원의 예산 규모로 추진하며,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분야는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 의료인력 지원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암검진 및 지역암센터 운영을 통한 암관리, 취약계층 의료복지사업, 올해부터 설치 · 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17개 사업에 24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다.

도는 이외에 코로나19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중증증 환자 전담 병원 지정 · 운영, 동네 병 · 의원 검사 · 치료체계 확대 운영 지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심리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22년 우리도의 보건사업계획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시군 보건소 직원과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정책 공유가 되어 더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 시행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본격 시동

디지털 격차 해소... 배움터 45곳에서 도민 누구나 무료교육

충북도는 25일 충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2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디지털 대응능력의 차이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위해 충북도는 시군 정보화교육장, 도서관, 복지관 등을 활용해 디지털배움터 45곳을 확보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교육생을 수시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크게 디지털기초, 디지

털생활, 디지털심화, 디지털특별로 구분해 교육생들의 수준에 맞춘 단계별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시군마다 디지털 체험존을 11개소를 구축해 키오스크, AI스피커, 태블릿, 온라인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 · 실습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수강을 원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집 근처 디지털배움터에서 개인 역량에 맞는 디지털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디지털배움터.kr'(검색창에 디지털배움터 검색)로 신청하거나 교육안내 대표번호(1800-0096)로 전화하면 된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충북 최초'... 아동 놀 권리 보장, 참여기구 다변화 정책 추진

충주시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충북 최초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다.

충주시의 아동친화도시 상위단

계 인증은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등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4년간의 변화와 이행실적 평가로 결정됐다.

인증 기간은 4년으로 오는 2026년 3월까지다.

시는 지난 2017년 8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꿈과 행복이 있는 충주, 아동과 함께'라는

비전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6개 분야, 153개의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한 충주시 아동·청소년 슝&플 건립을 비롯해 탄금호 물놀이장, 연수자연마당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 시설을 확충했다.

또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비 부모 교육,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

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등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번 상위단계 인증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간 확충, 아동 참여기구의 참여방식 다변화, 아동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아동 친화 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청주시 북대2동, '복이팡팡' 개소

강서교회, 연 1천만원 정기후원... 행복센터 내 마켓형 후원공간 마련



한법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청주시 흥덕구 북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정기후원 사업인 '복이팡팡(福2팡팡)' 개소식을 하고 있다.

충주시 흥덕구 북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한법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정기후원 사업인 '복이팡팡(福2팡팡)'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법덕 청주시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유광욱 시의원, 최경천 도의원, 이상식 도의원, 홍순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정현교 강서교회 담임목사, 김태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동 직능단체장과 복이팡팡 봉사단이 참석했다.

'복이팡팡'은 나눔과 복이 두 배로 가득하다는 의미다.

강서교회(담임목사 정현교)가 해마다 1천만 원 이상의 식료품, 생필품을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후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북대2동은 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켓형 후원공간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단전, 단수, 각종 공과금 체납사유로 어려움에 놓인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정

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공공부조와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장, 주민단체 회원 등으로 12명의 봉사단을 구성했다.

봉사단은 매주 화요일 물품을 지원하고 복지상담을 하는 등 민관협력력을 통한 인적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한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험에도 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시책을 시작한 데에 큰 격려와 축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서로 돕는 훈훈한 북대2동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정 담임목사는 "나눔을 통해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 느꼈다"고 말했다.

충주시, 셋째 자녀부터 '입학축하금' 지원

초등 30만, 중등 40만, 고등 50만원

충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자녀로, 2022년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모는 모(혹은 보호자)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단,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6개월 경과 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의 부모는 모(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축하금은 초등학교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며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043-850-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저소득층 노인 보행기 구입비 지원

제천시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은 올해부터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정임(제천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에 따라 제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5년 주기로 1인 1대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다. 조례는 추가 지원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라도 다시 구입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노인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는 증명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이 의원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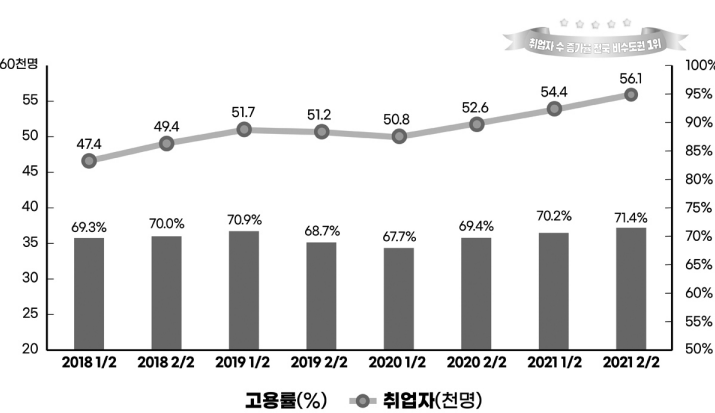
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라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행기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진천군, 고용률 71.4% 역대 최고... 전국 2위

일자리 공급·고용 사각지대 해소·정착지원 시너지 발휘



진천군 고용률 변화 그래프.

진천군이 도내 1위, 전국 2위의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했다.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발표에 따르면 진천군은 지난 2008년 고용률 공표 개시 이래 13년 만의 최고 수치인 71.4%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1년 상반기 수치보다 1.2%p가 증가한

것으로 5년 연속 충북 도내 1위, 경제활동인구 5만명 이상 전국 72개 시·군 중 제주 서귀포시(72.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누적 취업자 수도 상반기 5만 4400명에서 하반기에는 1700명 늘어난 5만 61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4년간 23.2% 증가해 전국 비수도권 지

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충북 도내 1위인 72.4%를 보였다.

군은 그동안 우량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을 신설해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체에서 구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일자리 공급 목표인 5935명을 115.1% 초과한 6832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른 지역 거주 근로자의 지역 정착도 유도해 직주(職住)일치 취업자 수를 1600명 늘렸다.

군은 올해도 600억원을 들여 8580여 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고용정책 변화에 대비해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진화한 진천형 고용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2024년 개원 목표 추진

열악한 응급의료체계 보완...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내과, 안과, 치과 등 8개 진료과목 갖춘 의료시설 설립 예정

단양에 8개 진료과와 30개 병상을 갖춘 보건의료원이 오는 2024년 개원한다.

2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보건의료원 공사에 들어갔다.

보건의료원에는 30병상 규모의 내과, 안과, 치과 등 8개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시설이 들어선다.

군은 예정된 기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 열악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초 군은 300병상 규모의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수반되는 현실적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서둘러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문소생술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이는 등 응급상황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건립되면 지역 내에서 신속한 응급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 '똑똑안부확인서비스' 도입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음성군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안심 케어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도입한다.

군은 최근 늘고 있는 고독사를 사전 차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노인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업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이달부터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우울증 가구, 중장년층 단독가구 등 고독사 노출 위험이 있는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등록한 후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통화기록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도 응답이 없을 때 곧바로 담당자에게 실시간 안부 확인 알람이 통보되는 서비스다.

알림 통보를 받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직원은 바로 서비스 가입 군민에게 연락을 취하고 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군은 사업비 9천300만원을 투입해 군민 2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자유로운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신청 시 별도 장비나 기기 설치가 필요 없고, 2G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50세 이상 중장년층 1인 가구(음성군 거주자)로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가구 등이며 서비스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사회서비스 중추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첫 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중현 설립추진단장 등이 25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관리 및 지역 기관 운영 지원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국민 복지욕구 능동적 대응”

보건복지부가 25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을 개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 법인이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관리 및 평가,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 수립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연구·조사,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 권리 보호,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 업무를 맡는다. 특히 법률 제정으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경영실

적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근거가 마련돼 효율적인 정책 기획·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설립·운영 근거 법률이 제정된 후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나아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를 지원했다.

권덕철 장관은 서비스원 개원식에서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폭넓게 지원해 장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21일부터 신청 접수…근로자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

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다.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 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17세 여성 청소년 HPV 예방접종 지원

(인유두종바이러스)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이미 접종시 남은 횟수 지원

14일부터 13~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기존의 12세를 대상으로 하던 HPV 접종 국가 지원 대상을 13~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인 12세 이외에도 2004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 여성 청소년 29만명, 18~26세(1995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

생자) 저소득층 여성 10만명이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995년생은 올해 1차 예방접종 후 2, 3차 접종 일자가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첫 접종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비용이 지원된다. 이미 접종을 받았던 기접종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남은 접종 횟수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의 경우 접종 당일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를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백신은 HPV 2가·4가 백

신 두 종류다. 질병청은 “HPV 백신의 경우 47가만 9~26세, 27가는 9~25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연령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상 연령 확대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며 “특히 HPV 백신이 타 백신보다 고가이므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HPV 백신의 평균 접종비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가가 16만 7551원, 9가가 20만 4497원이다. HPV 예방접종은 연령과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간격이 다르다. HPV 2가 또는 4가 백신을 처음 접종한 나이가 만 9~14세인 경우, 1차 접종 기준으로 6~12개월 이내에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만약 만 14세에 첫 접종을 받아 2차 접종 시기가 만 15세 이후로 늦춰졌다고 해도 접종은 총 2회로 끝난다.

1차 접종 연령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총 3차례 접종을 받게 되는데, HPV 2가 백신은 첫 접종 후 1개월 후, 2차 접종 후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HPV 4가 백신은 각각 2개월 후, 6개월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HPV 예방접종 시,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구인두암, 항문-생식기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HP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감염된 후에는 접종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더 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HPV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 학생·활동지원사 돌봄 강화된다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재학생에 최대 29만6000원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대상 최대 33만6000원 지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와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금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

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월 20시간(29만 6,000원)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한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확인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일·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 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격리기간 내 1일 4만 8,000원,

최대 33만 6,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자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푸드뱅크, 농심과 ‘긴급구호 식품지원’ 전개

결식위기 취약계층 대상… 전년대비 지원 30% 확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주)농심이 지난달 23일 저소득 소외계층의 긴급구호 식품 지원을 위한 착수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전국푸드뱅크와 (주)농심(대표이사 박준)이 올해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긴급구호 식품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주)농심은 지난달 23일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서 2022년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다양한 이유로 결식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키로 했다.

이머전시 푸드팩은 지원이 필요한 재난재해 상황 또는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농심이 단독으로 사업을 지원하며, 신라면과 안성탕면, 너구리, 백산수 등 자사대표 간편식으로 구성된 푸드팩을 매년 1만 세트를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대비 지원물품을 30%가량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머전시 푸드팩 1만 세트 중 5000세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며, 나머지 5000세트는 재해재난 등 긴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 확대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 최소화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 내 공공시설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대에 급식·간식, 여가와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2017년부터 진행돼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서 총 694곳이 운영 중이며, 아동 약 1만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 문제를 고려해 다함께돌봄센터 30곳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운영 시간을 2시간씩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왔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7시부터 9시(방학 중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각각 아침·저녁으로 2시간씩 총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한다. 연장된 시간 동안 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www.dado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아동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

청주자생한방병원 업무협약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얹장’

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은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용선)와 지난 15일 지역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청주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청주자생한방병원 최우성 병원장과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용선 회장을 포함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자생한방병원은 청주시지역아동센터 임직원 165명과 2190명의 센터 이용 지역 아동들을 위해 척추·관절



청주자생한방병원과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지역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이에 청주자생한방병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건강 강좌를 열어 지역 아동들

의 건강을 챙길 계획이다.

최우성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주자생한방병원은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관이

돼 기쁘다”며 “특히 아동들이 튼튼하게 성장해 각자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척추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노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합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착공... 2023년 10월 준공 목표



충주시동부노인복지관 조감도.

충주시는 동부지역 노인들의 원활한 편의시설 이용을 돕고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의 기초가 될 ‘동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안립동 1071일월에 지난 2일부터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진행 중이다.

동부노인복지관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복지관 건립사업에는 총 230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규모는 연면적 4천952㎡, 지하1층, 지상4층으로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대강당, 식당 등을 갖춘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설계 공모를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 설계안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동부노인복지관 조성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노인여가프로그램 제공과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일정대로 동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극단적 선택 감소시킬 것”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GS25 ‘마음방역’ 업무협약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재경)는 GS25 5부문 1지역 본부와 15일 금양읍 GS25 금양터미널 가맹점에서 고경태 지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 자살위험군 발굴사업 ‘마음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GS25 5부문 1지역 본부는 협약을 통해 9개 읍·면 내 GS25 일부 가맹점을 ‘마음방역+ 편의점’으로 지정했다.

센터 관계자는 “본 협약은 음성군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정된 GS25 가맹점에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언제든지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검사지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GS25 5부문 1지역본부와 15일 음성군 자살위험군 발굴사업 ‘마음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 비치될 것이며, 검사를 통해 발굴된 우울 및 자살위험군은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상담,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문의 사항은 043)872-1883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천복지재단,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천복지재단(이사장 장병호)이 지역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

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처우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심리, 정서, 신체적 피로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1인당 최대 5회, 회당 10만원(최대 50만원 이내)의 상담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제천복지재단

으로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알람을 받고 개인이 선택한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상담 실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복지재단(043-647-12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빠른 변화 위해 온 힘”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2대 회장 재선출

서청주노인요양원 권태엽(사진) 회장은 지난 2월 24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역사를 갖고 있다. 권태엽 회장은 2019년 21대 한노중 회장으로 선출되어 양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획득과 요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시설을 옥죄는

감산제도 등 다양한 개선을 위하여 힘써왔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회원시설을 위해 3년 임기 동안 코로나방역용품지원, 특장차량, 생활용품지원 등 3년간 65억 원 정도의 배분사업을 전개했다. 권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

도의 변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며 “대통령선거에서 양당 후보들에게 받아 낸 노인복지 공약을 발판으로 합리적인 노인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겸허한 마음으로 회원들의 민심을 읽을 줄 아는 22대 회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권 회장은 2008년 서청주노인요양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며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충북 유일 5회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서울대 교육학 석사를 마친 뒤 청주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권 회장은 현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증평군수어통역센터가 25일 개소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현판 지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증평군수어통역센터’ 개소

청각·언어장애인들 일상생활 지원, 불편 해소 기대

증평군수어통역센터 개소식이 25일 증평군 장애인회관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홍성열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충북농아인협회 관계자, 장애인 가족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해 센터의 시작을 축하했다. 지난 1월부터 장애인회관 1층에서 운영을 시작한 증평군수어통역센터는 관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으며, 운영이 안정화되는대로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홍성열 군수는 “증평군 수어통역센터 개소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당당히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물품키트 지원 ‘훈훈’

홀몸노인·장애인 회원 등 대상 4월 29일까지... 결식예방 총력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오재훈)은 코로나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복지관 회원 중 홀몸노인과 장애인 회원 재택치료자들의 결식예방을 위해 물품키트를 전달해 안전한 재택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지원사업을 진행한 다.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하며 사업대상은 복지관 회원 중 홀몸노인과 장애인 회원 중 코로나19 재택치료자로 기존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결식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물품키트.

노인·장애인 밀집한 지원 대상자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신청은 전화(043-733-2500)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고용및직업

주거지원

보육및교육

의료및건강

요양및돌봄

정신및심리정서지원

문화및여가

권익보장및법률

일상생활지원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충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윤석열 정부 5년’ 주요 발전 공약은?

복지분야, 월 100만원 부모급여로 양육 지원… 부부 육아휴직 총 3년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생계급여 확대… 세대 불공평 없도록 연금개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에서 경제·복지·사회·교육·방역 등 주요 분야 국가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빈곤 방지에 힘쓰는 등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정책 방향이다.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와 분야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 분야

윤 당선인은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이끌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높인다는 목표를 경제정책 구상으로 내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이끌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또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 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나 특수관계인 제도로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 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를 통해 경제활동 주체를 재활시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일구내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이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목표를 내세우며, 임기 5년 동안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표 공약이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약 48만호에 달하는 만큼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월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이를 사주면서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흥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를 공급한다.

부동산 정책에서 윤 당선인은 장기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시장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 지원 확대에 주력한다. 대표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당장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되 ‘선 정비-후 과세’ 원칙 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더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과 관련해 당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규모 손실보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며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함께 도입한다.

윤 당선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해 폭넓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

윤 당선인은 현행 방역체계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과학에 기반해 새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방역정책의 큰 틀이 어떻게 수정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마련한

다는 것이다.

특히 새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도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국제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先)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삼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조치 고안을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5월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달는 지금보다는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가능하게 할 방역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으로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확진자 규모가 급증해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자 같은 해 12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 약 3개월간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 관리가 관건인 현 상황을 고려해 의료 대응 부분에서도 일부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

또 확진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등 필수 의료시설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평소보다 가산된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과 제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중증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접종과 인과관계를 재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국민의 힘 공약집에는 예비 부모부터 육아,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 대상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담겨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유급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0~12개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1.5년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연장하며 육아 재택근무도 도입한다.

영유아·초등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인종 민간 아이 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 돌보미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과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유보통합)하고, 정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조식·석식비를 지원해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와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을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아기수첩을 통합 기록하는 ‘베드북’(출생 이후 고교 졸업까지 건강검진 기록)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관련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며, 아동·청소년을 방임한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나홀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

경제

- 정보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청년 월가주택 30만호 공급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외교·안보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 한국형 3축체계 복원 및 사드 추가 배치
- 김대중-오부처 선언 2.0 시대 실현

복지·노동·교육 등

- 중증외상센터,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 등에 공공정책 추가 적용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으로 지원
- 최저임금제 탄력 적용
-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추진

사법개혁

- 공수처 ‘고위공직자 우선 수사권’ 폐지
-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 전문법원 설치, 사법서비스 제공
- 행정심판 동일로 원스톱 권리구제

정치 분야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 및 인원 30% 감축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설치
- 총리·장관 자율성, 책임성 확대

청소년의 생식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남성에게도 12세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어르신 채용 기업을 지원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관리를 지원하고, 4차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문화·여가바우처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아플 때 쓸 수 있는 상병수당도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 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이동·교통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최대 20% 확대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도록 한다.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개편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이나 실직·이혼·질병 등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단전·단수·카드제납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해 가정·아동·상황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복지시설도 스마트-디지털 시설로 업그레이드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현 체계는 2030 세대의 연금부담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며 세대 간 공평한 연금부담과 장기적 재정 안정

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1인 1국민연금 의무화와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공약 재정을 266조원 정도로 추계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질병·실업·장애·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

교육부문에서 대입 정책은 ‘대학입시 제도 단순화, 정시 모집비율 확대 조정’을 공약했다.

입시에서 수능 비중을 키우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학교 내에서 학생별 진로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겠다는 고교학점제와 대치되며, 수능 자격고사화 등 수능 개편 주장과도 전혀 방향이 다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능 및 입시체제 개편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추진된 정책인 만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다.

보육을 공교육에 편입하는 유보통합은 유아-초등-중등-고등 정규교육 체계를 잡는 전제 조건으로, 학제 개편 추진과도 연계되는 개념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현행 6-3-3-4년 교육 체계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초등학생 돌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과후 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현실화한다면 초등학생은 종일 학교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주도형·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노동 분야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량 진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재교육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고, 업무 여건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 휴가·휴일 미부여 등을 당한 청년 아르바이트 생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산업별·지역별로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인력 재배치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숙련 취약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인공지능(AI)과 공공·민간의 고용노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준다.

중소기업에는 인제 채용 지원, 일자리 질 개선, 근로자 교육훈련, 일터 혁신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사 합의는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을 유지하며 ‘풀타임’(전일제 근로)과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남녀가 평등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 근로 공시제’가 도입된다.

채용 단계에서는 지원자와 서류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공시한다.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를 공개하고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 성비, 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원전 최강국 도약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이 신한 올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 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천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 지원하는 등 필수에너지 복지를 확대해겠다고 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공감 645호, 연합뉴스〉

복지광장



한 영 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

3월 8일은 1975년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계 여성의 날은 올해로 114회째, 1945년 시작된 한국여성대회는 37회째를 맞이한다. 한국은 2018년부터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충북여성대회는 한해는 서울대회 참가, 한해는 지역대회 형태로 청주에서 진행되며, 올해는 지역대회의 해로, 3월 8일 기념대회와 폭력예방캠페인을 소나무길 입구에서 시작하여 시청, 도청방향으로 가두 행진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20세기 초 여성의 노동, 생존, 참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서프래제트(Suffragette, 2015)는 “여성은… 정치적 판단이 어렵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사회구조가 무너진다…”는 연설장면으로 시작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당시

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난다. 주인공 ‘모드와츠’는 세탁공장 노동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간다. 그녀와 남편은 같은 세탁 공장 노동자이지만 자녀를 돌보는 일과 집안일은 전적으로 모드의 몫이다. 모드가 참정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모드의 남편이 무심코 던진 질문은 “투표권? 당신이 투표권을 가져서 뭘 하려고?”였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100여년 전 여성들의 이 외침은 당시 여성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절규이자 투쟁의 언어로써 빵은 노동권과 생존권을, 장미는 인간의 존엄과 참정권을 의미한다. 1913년 2월 28일 미국의 섬유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뉴욕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영국에서는 가계 창문을 부수고 우체국에 폭탄을 던지고 전선을 끊었지만 번번이 좌절되다가 1913년 달려오는 국왕(조지 5세)의 말에 몸을 던져 순교한 후여야 비로소 일부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1928년 드디어 남녀가 동등한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다.

100년 전 선배여성들의 목숨을 건 투쟁 덕분에 오늘날 여성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법과 제도에서 명시적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여성의 지위가 예전보다 높아져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2021년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완전한 성평등이 되려면 135.6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라 성별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1위, 유리천장지수는 OECD국가 중 9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0대 기업임원 중 여성비율은 4.8%,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19%, 시·도지사는 여성이 0명인 실정이다.(해럴드경제, 2022.2.8.)

위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습, 문화, 제도에 보이지 않게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면 ‘n번방 방지법’이 그것이다. 추적단 불꽃1)은 n번방에서 피해자를 “노예”로 부르며 성폭력을 관전하는 등의 무자비하고 끔찍한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n번방 방지법 제정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공론화를 위해 여러 언론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실태를 알렸지만 언론은 침사리 보도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이 바퀴벌레보다 빠르게 수를 불러 나갈 때 무력감을 느꼈다고 한다. n번방의 시초 ‘갯갯’은 자신의 일탈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성들의 성을 착취했고, n번방의 입장자는 26만명 가량의 군인,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n번방을 방관한 우리 사회는 “당신이 투표권을 가져서 뭘 하려고?” 무심코 던진 100년 전 모드의 남편과 무엇이 다른가?

해마다 하루 평균 26건의데이트폭력,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에 이른 다. 과연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까?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깊은 상처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성평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혹시 이런 말을 듣거나 하지는 않았는가? “남자친구는 있나. 결혼이나 자녀 계획은 없나. 애는 낳아야지. 미투는 여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 아니냐. 조금만 꾸미면 괜찮을 텐데”... 직장에서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차별적이고 감수성이 부족한 말들이다.

UN은 2021년 3.8 세계여성의 날 슬로건을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으로 정했다. 세상은 절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내일,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내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차별적인 요소를 차별로 볼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각주1) 대학생으로 탐사취재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익명의 멤버 ‘불과 꽃’이 2인조로 활동, 텔레그램 n번방을 취재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언론제보로 이를 공론화함. 제22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에서 특별상 수상.

현장의 목소리



박 현 규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생활재활교사

사회복지사로 첫발을 내디딜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고 경험하며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첫째,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하라. 자원봉사를 하며 내가 과연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

을지, 더 나아가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등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생각할 수 있다. 단기간 자원봉사 활동도 있지만 기회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 및 장기 봉사 활동을 추천한다.

장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활동하는 봉사 이외에도 활동 기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고 봉사활동처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기관이라면 해당 분야에 속한 기관이라면 더욱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도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해본다면 추후 사회복지사로 어느 분야에서 첫 시작을 할지 고민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가 활동할 사회복지 분야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라. 많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며 다양한 자원봉사 및 실습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취업 진로 결정의 문턱에서 어떠한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도 과거에 예비 사회복지사로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양한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었지만, 편입으로 인해 단기간 내 다양한 경험을 쌓기엔 조금은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추구하는 분야에서 시작을 결심한 이후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지속적인 단기·장기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기회가 생겨 실습까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자료 분석, 기관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접근해보길 바란다.

셋째, 나의 역량을 점검하고 키워라. 1급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 자격증 준비(관심 분야 관련, 컴퓨터 활용능력, 운전면허 등), 관심 분야 실습 및 계약직 근무 등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며, 이 밖에 역량강화를 위해 본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과 보살핌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지인, 가족, 친

구, 선배 등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다볼 필요가 있다. 강점은 유지하며, 보완할 점을 계획하여 실천한다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의 다양한 자원 형성에 힘써라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인적자원 또는 물질 자원 등 어떠한 자원이 필요하다면 자원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지는 개별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업무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현재는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명 한계점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요즘은 다른 직종에서도 다양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지는 협력이 대부분이거나 필수인 분야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자원들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원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크고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적어도 먼저 선의의 협업이나 도움을 준다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제노비스 신드롬을 벗고 행동하는 선한 이웃으로...



문 영 숙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촉전문 강사

1964년 3월 13일 뉴욕 퀸스지역 주택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Kitty Genovese라는 28세 여성이 한 남성의 칼에 무참하게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노비스는 새벽 3시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이나 3번에 걸쳐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저항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의 범인 윈스턴 모즐리(Winston Moseley)는 부인과 두 아이가 있는데도 밤 늦게 집을 나와 여자를 하나 골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죽일 여자를 찾다가 제노비스를 택했다. 그는 칼에 찔려 죽어가는 그녀를 강간하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 38명이 목격했지만 아무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가 숨진 뒤에야 한 명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다.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목격자들은 대답했다. 이후

에 이 사건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목격자에 대한 보도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었고 2016년 과장되었다는 정정 보도를 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파트 단지였기에 분명한 목격자들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35분간이나 지속된 사건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 ‘제노비스신드롬’(Genovese Syndrome)이라는 말이 유래되었고 후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방관자효과(bystander effect)’, ‘구경꾼 효과’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이는 어떤 사건이 진행 될 때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책임감에 대한 분산이 발생하여 방관하게 되어 도움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신고가 없었던 것은 ‘냉담한 사회 구성원의 이기심’ 이라기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이라

는 생각을 목격자들이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의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John Darley)와 빙 라탄(Bibb Latane)은 방관자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을 했다. 한 학생이 갑작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실험을 해본 결과, 혼자 있을 때는 85퍼센트가 도움을 주는 반면, 두 명이 있을 땐 62퍼센트, 네 명이 있을 땐 31퍼센트로 도움을 주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랑과 라탄은 ‘방관자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원적 무지’와 ‘책임감의 분산’이라고 말했다. ‘다원적 무지’는 해당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오해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감의 분산’은 상황의 모호성과 더불어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움을 주겠지 하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메카니즘을 이해한다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막연히 “도와주세요” 하는 것 보다 한명을 특정하여 “저기 안경 쓰신 분 112에 신고해주세요”라고 책임감이 분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요청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얼마든지 있다. 그럴 때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방관자 효과’를 이해하고 있다면 행동하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

중증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희롱과 성폭력, 데이터 폭력, 생활고로 인한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기사들을 접하게 된다. 도움을 필요 했지만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해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 이웃들의 희생을 통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 과제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중요한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이를 목격한 자신이 도움의 손을 내미는 행동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본인이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위급한 상황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전화 한 통화,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담당자와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작은 배려는 법과 제도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어주는 시놉스가 되는 것이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작년에 인근 공장(상시 5인 이상 근로)에 취업하게 되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사정이 좋지 않라며 일주일에 2번만 근무하고, 임금 역시 근무 시간에 비해한 시급으로 감축될 거라는 사업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두 달 전부터는 감축된 임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 일주일에 2번만 근무한다고 하여 임금 역시 근무한 시간에 비해한 시급으로 감축된다는 사업주의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휴업수당과 체불임금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 이외의 경영장애사유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급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등 경영난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주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당해 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외에도 민사절차에 의

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청구를 하여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사동정

- 무지개도서관
▷관장 박상재 / 3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7면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계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슬지 대리

복지정보 제공

[청주시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 애(愛) 행복+' 모집 안내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저소득가정(한부모, 조손, 미혼모부자, 북한이탈가족, 청소년부모 등)과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등의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기간: 등록일로부터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가정의 욕구에 맞추어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지원, 긴급위기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여성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청소년 부모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주거 및 직업고용 등의 정보제공 등 지원
- 신청기한: 연간 상시
-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참고: <https://cjfc.familynet.or.kr>
- 문의: 사례관리팀(043-295-1817)

[청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행복 어울림' 모집 안내

- 지원대상: 청주시 거주 경제·심리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외국 국적동포+재외국민), 난민 등
- 지원기간: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상담, 자원연계, 경제·법률·주거·고용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학습지원서비스, 통번역서비스,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 참고: <https://cjfc.familynet.or.kr>
- 문의: 사례관리팀(043-295-1817)

CJ도너스캠프청소년 문화동아리 모집

- 사업목적: 문화를 사랑하는 청소년에게 문화창작활동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함
- 모집대상: 문화를 꿈꾸는 아동·청소년 누구나
- 모집부문: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뷰티 문화동아리
- 모집기간: 2022.3.7.(월)~4.12.(화)
- 지원혜택: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동아리 창작활동비 300만원, 진로멘토링, 문화교육 콘

텐츠 및 특강 제공), '22년 Advance동아리 승급 기회 부여

- 신청방법: <https://www.donorscamp.org/>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통해 신청
- 문의: 02-6925-5554

[코아드]코아드 자동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송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함께독서 공지사항 확인 - 신청양식 확인 -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 (착불 4,000~5,500원 / 지역에 따라 요금 상이)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02-553-3488

[KT&G복지재단] 2022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 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후원금 사용 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welfare.org) 참조

[청주내려노인복지관] '시니어따봉' 연수단 참여자 모집

- 모집대상: 자원봉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청주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모집기간: 2022.3.28.(월)~4.6.(수)
- 모집인원: 20명
- 활동내용: 칼럼바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주간보호센터 방문 칼럼바 공연 및 연주회)
- 신청자격: 3차 백신 접종 완료자, 무선공유기 보유 및 무제한 데이터 사용중인 어르신
- 신청방법: 전화접수(043-216-9810)
- 선발방법: 정원 초과시 무작위 추첨 ※ 우선선발(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 활동기간: 2022년 4월~10월 / 매주 금요일 ※ 칼럼바 연주법 교육: 5월~6월초 매주 월, 금
- 수강료: 무료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 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자원 봉사자 모집

▶찾아가는 실버대학 프로그램 업무보조

관리센터 :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834-3411

▶구성품 조립 및 환경미화 봉사

관리센터 : 보람근로원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14-2271

▶마을활동가 모집

관리센터 :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88-3060

▶장예 청소년 멘토링 봉사

관리센터 :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95-2505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해피하우스다솜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856-4001

▶홍보물품 준비활동

관리센터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731-3685

▶밀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청주내려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10-9810

▶업무보조활동

관리센터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65-0401

▶기증품 접수 등 행정보조

관리센터 : 아름다운가게 청주신봉점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21-0011

▶학습지도 봉사

관리센터 :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73-507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

희)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

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정희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교육봉사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탬수 있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대체파견자 채용 모집

모집기간: 4. 1.(금) ~ 4. 15.(금)

권역별 채용인원
(돌봄직/조리직)

상시(월급제)

- * 돌봄직
 -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1명
 - 중부권(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2명
 - 남부권(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명
- * 조리직(청주시 거점) 1명

단기(시급제)

- * 돌봄직
 -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명
 - 중부권(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명
 - 남부권(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명

■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우대조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의 경력자 우선선발

■ 구비서류: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cbaw.or.kr) '취업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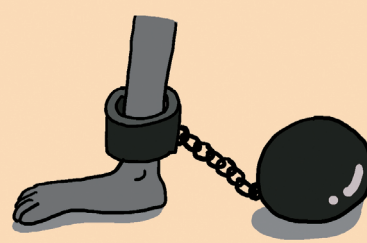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ONGBUK-DO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복/지/만/평

색깔

이창신 www.bokmani.com

피부색이 다르다고
잡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까매...

생각이 다르다고
잡혀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이
땡겨...

자신과 다르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